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인생에 대하여

사람의 삶이 인생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여행이 인생이다. 인도나 중국에서 2박 3일쯤 달리는 장거리 기차를 타고 가다보면 옆자리의 얼굴이 몇 차례 바뀌게 된다. 노인이 앉았다가 젊은이로 바뀌고 고운 얼굴이 앉았다가 미운 얼굴로 바뀌며 차창으로 스치는 풍광처럼 천연색 사연이 이어진다. 옆 좌석에 어떤 사람이 앉았느냐에 따라 설렘과 피로감이 빛과 어둠으로 바뀔 수 있을 터. 장거리 기차여행처럼 인생살이는 끊임없이 무대와 배역을 바뀌어가며 희(喜)·노(怒)·애(哀)·락(樂)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영원한 기쁨도 없지만 영원한 슬픔도 없는 것이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도 공존하는 것이다. 〈열반경〉에 등장하는 행복을 몰고 오는 언니와 불행을 몰고 오는 동생의 자매공존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인생살이의 두 개 날개이자 바퀴인 것이다. 세상의 절반이 빛이요 절반이 어둠이듯 낮과 밤의 교차로에서 쉼 없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리며, 세월의 무게에 눌려 철이 들며 늙어가며 병들어 사라지는 존재가 인생인 것이다. 꿈과 희망을 서너 걸음 앞세워 놓고 어깨동무하듯 짝을 찾아 공든 탑을 쌓아가지만 언제나 남는 것은 마른 모래를 쥐고 있는 빈주먹과 같아 허무의 그림자만 길게 누워 장송곡의 상여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한때는 사랑으로 익어가는 희망의 꿈 밭에 땀방울로 씨앗 삼으며 낭만과 기대감으로 물 뿌리고 노력으로 거름 삼으며 빛을 모아 무지개 꿈을 키워왔지만 어느덧 해질녘에 이르면 이광수의 〈꿈〉처럼 세상살이 그 자체가 꿈속의 꿈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젊어서만 목마른 게 아니다. 늙어서도 목 마르다. 청춘만 아픈 게 아니다. 노년도 아프다. 징검다리, 버팀목은 젊어서도 필요하고 늙어서도 절실하다.

군불 지피듯 따스하게 번지는 말 한 마디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 밥이 되는 영양소이다. 경쟁도 어지간하게 선택도 어지간하게 시험의 관문을 그림자처럼 달고 살아 왔지만 타작해보면 알곡 한 톨 건질 수 없는 빈손, 검불떼기뿐인 삶이 알몸으로 길게 누워 있기 마련이다. 팍팍하고 고단한 세월의 톱니바퀴에서 행복을 위해 자유를 위해 어지간히 발버둥 치며 노력해 왔지만 한 마리의 다람쥐처럼 쳇바퀴 돌고 도는 꼭두각시 인형의 삶이었던 것이다.

돋보이려 발돋움하며 키를 키워 왔지만 주눅들 일이 널려있어 마음의 키는 나날이 졸아든다. 민낯에 덧칠을 하며 가면무도회를 흉내 냈지만 삭신은 늙고 병이 들어 걸음걸이마저 자유롭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나이테 주변에 몰려드는 것은 허무의 그림자뿐이 아니다.

늙어 간다는 것은 몸에서 힘이 빠져가는 것보다 용기가 빠져 나간다는 현실의 절망감이다. 곱게 늙어가는 것도 희망사항일 뿐 현실의 벽은 녹녹치 않다. 주위를 둘러보면 떠나는 자의 뒷모습만 보일 뿐 찾아오는 발걸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뚝 끊기게 되어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이라 하고 혼자 술 마시는 것을 혼술이라 한다는데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 가족 형제의 숫자와 상관없이 혼밥과 혼술을 모래 씹듯 사약주 마시듯 쓸쓸함 속에서 막 내리게 되어있다.

마음의 빗장 열고 나누는 삶 살자
칭찬의 言보시 생활화 실천하길

그저 그렇게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인생이 허무하고 부질없는 꿈같다며 〈아라비안 나이트〉의 한 가닥 추억거리를 남기며 사라지게 되는 존재이다. 자, 그러므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생각을 바꾸며 나누는 삶을 열어 가야한다. 먼저 칭찬하는 말보시를 생활화해야 한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했음을 부드럽게 마음을 담아 표현하며 매듭을 풀어가자.

사탕 한 개라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미소 띤 얼굴로 내가 먼저 인사 나누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무엇인가를 바라지 말고 무엇인가를 나누며 배려하며 개운하게 매듭 풀며 살 일이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서 아킬레우스 장군은 브리세이스 공주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신(神)이 인간을 부러워하는 것은 사람에겐 죽음이 있다는 것이다. 죽음이 있으므로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을 손님 대하듯 존중하고 나에게서 떠나는 사람도 손님 보내듯 개운하게 보낸다.'

마음이 움직이면 선이 되질 않는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의 오악(五嶽)가운데 형산(衡山)은 후난성(호남성) 중부에 있는 명산이다. 옛날에는 이 산을 남악(南嶽)이라 불렀다. 육조의 수제자 남악회양 선사가 이 산에 오래 주석하였으므로 호를 남악이라 하였다. 물론 천태지의 대사의 스승이었던 천태종 2조 남악혜사(南嶽慧思) 스님도 이 산에 오래 머물었기 때문에 산 이름을 따서 호를 삼았다. 이 형산의 척발봉(擲鉢峰) 아래에 복엄사(福嚴寺)라는 절이 있다. 이 절이 바로 남악회양 선사가 살았던 곳이다. 이 절 곁에 황벽희운 선사의 재가 제자였던 재상 배휴(裵休)가 쓴 최승륜탑(最勝輪塔)이라는 탑이 있고 회양 선사의 탑비가 있다. '최승륜'이란 회양 선사의 탑호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마경대(磨鏡臺)라는 표지석이 하나 세워져 있다. '마경대'는 글자 그대로 거울을 갈았다는 뜻이다. 이 마경대는 남악회양 선사와 그의 제자 마조도일(馬祖道一:709~788) 선사 사이에서 있었던 일화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 마조 선사가 전법원(傳法院)에서 선정을 익히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마조 선사가 법당 앞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회양 선사가 지나가다 보고 물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좌선을 해서 무엇 하려 하는가?"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첫날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끝났다.

다음 날 보니 마조 선사가 또 그 자리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그를 본 회양이 마조 선사가 좌선하는 앞으로 벽돌 하나를 가져가 돌 위에 갈고 있었다. 좌선을 하다 이 모습을 본 마조 선사가 물었다.

"무엇 하려고 벽돌을 갈고 계십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네."

"벽돌을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지 못하거늘, 어찌 좌선을 하여 부처가 되려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수레가 멈췄을 때 수레를 가게 하려면 수레를 때려야 하겠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이 말에 마조 선사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제호(醍醐)를 마신 것 같았다고 〈전등록〉에서는 말하고 있다. 굳이 부연해 말하자면 좌선을 잘하여 몸이 부동자세를 잘 갖추고 있더라도 마음이 움직이면 선(禪)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가지고 선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마조 선사는 강서(江西)에서 법을 오래 펴서 한 때 그를 '강서'라고 불렀다. 육조 스님이 회양 선사에게 예언하기를 "이후의 불법은 그대로부터 시작하여 망아지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마조 선사의 출현을 두고 한 말이며, 당시 사람들이 마조 선사라고 불렀다 한다.

마조 선사는 어느 날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제각기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야 한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달마 대사께서 남천축국으로부터 몸소 중국에 오셔서 상승(上乘)인 일심의 법을 전하여 사람들을 깨닫게 하였고 또 〈능가경〉의 경문을 인용하여 중생 심지에 도장을 찍으니 사람들이 뒤바뀌어 믿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법은 누구나 갖고 있으니 이렇기 때문에 〈능가경〉에서 말하기를 '부처님 말씀은 마음을 종지(宗旨)로 삼고 문이 없음을 법문(法門)으로 삼는다' 하였다."

또 말하였다.

"무릇 법을 구하는 자는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선(善)을 취하지도 말고 악(惡)을 버리지도 말라. 자체의 성품이 본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계(三界)는 오직 마음뿐이요 삼라만상은 한 법이 찍어낸 것이다."

어떤 스님이 마조 선사에게 물었다.

"화상은 어찌하여 마음이 곧 부처라 하십니까?"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니라."

"울음을 그쳤을 때는 어찌합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니라."

또 한 번은 어떤 스님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그러자 대사는 문득 그를 때리면서 말했다.

"내가 그대를 때리지 않으면 제방에서 나를 비웃는다."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이치, 한마음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⑧ 신경과 마음

〈아미타경〉에서는 '물과 새와 나무 숲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 한다'라고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운암 선사의 이 말을 듣고, 순간 견처(見處)가 열린 동산 선사는 그 감흥을 게송으로 나타냈습니다.

정말 신통 하구나 정말 신통해
무정(無情)의 설법은 불가사의 하다네
귀로 들으면 끝내 알기 어렵고
눈으로 들어야만 알 수 있으니

돌이나 나무인 무정이 설법하고 그 설법을 귀가 아닌 눈으로 듣는다는 것은 돌과 나무, 눈, 귀 등 일체가 한 마음이므로 눈이 들을 수 있고, 귀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 EBS에서 '감각'이란 제목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모습을 우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눈이 최초로 본 대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본 대상을 처음 본 대상과 조합하여 뇌가 스스로 대상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뇌가 조합해 놓은 모양 즉, 내가 보고 싶은 모양을 본다는 것입니다.

눈에 붕대를 감아서 눈과 대상을 5일 정도 완전히 차단하였을 경우, 뇌 뒷부분에 있는 시신경과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도 뇌의 앞부분에 있는 소리 신경과 해마로 이동합니다. 소리에 의존해 대상을 보게 됩니다. 즉, 눈이 없으면 대상도 없고 뇌의 시신경도 없어지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지팡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소리를 발생시켜, 대상에 반사되는 소리를 듣고 대상의 크기를 귀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 대상을 조합하여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 즉 반복적인 행위인 습관의 업보(業報)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상이 깨끗하고 더럽고, 예쁘고 밉고, 크고 작은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분별하는 망념으로 그와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범소유상(凡所有相)이 개시허망(皆是虛妄)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하면 즉견여래(卽見如來)이니라. 무릇 있는 모든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현상이 현상이 아닌 줄을 보면 곧 여래를 본다' 고 하셨습니다.

일체는 분별이 없어 본래 공적하고, 본래 청정하며, 본래 열반이고, 본래 해탈이며, 본래 구족하고, 본래 부처인데 우리들의 6근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망념에 막혀서 참모습의 이 마음을 못 보는 것입니다.

눈에 붕대를 감아서 눈과 대상을 완전히 차단하였을 경우, 시신경과 해마가 소리신경과 해마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시신경과 소리신경이 한 마음으로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서로 공유,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님이 지팡이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소리를 발생시켜 소리가 대상에 반사되는 것을 듣고 대상의 크기를 귀로 볼 수 있는 것은, 6근과 6진이 한 마음이므로 귀가 듣고, 보고, 냄새 맡으며, 맛을 보고, 감촉을 느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근도 이와 다르지 않는 까닭은 마음이 듣고, 듣는 것이 마음이며, 마음을 듣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법당 상황따라!

마이크 단추 한 번 누름에서 장엄하고 위엄어린 소리! 청아하고 은은한 소리! 구슬프게 젖어드는 소리가 연출되어 '재'스님들에게는 평생 밥줄 마이크!

장사 수단

각종 염불시설을 갖추고 법당에서 소리만 비교 후 쌔엥! 가버리면 아! 그 소리 듣고나서 염불이 너무 힘들어! 안되겠어! 한 번 들러요!

백팔번지 이곳은 각종 시스템을 진열하고 많은 스님들을 모십니다. 구경 한번 오시지요!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주)염불소리 ☎ 055)343-1191, 010-9471-2026